

주님의 날 (주일)

디모데후서 4:1-5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BVC에서 영적 형성(Spiritual Formation) 시리즈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 형성이란 말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빔어 가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될 때, 곧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성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 있는 동안 완전히 거룩해지지는 않지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되어 갑니다. 그때 성화가 완성되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다룰 주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빔어 가시면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지난주에는 영적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십일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득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신부이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며 어떤 교회를 자신의 영적인 가정으로 삼았다면, 드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왜 십일조가 중요한지, 왜 반드시 해야 하는지 커피 한 잔 하며 기꺼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왜 내가 힘들게 번 돈을 교회에 드려야 하지? 생활비도 비싸고 나도 힘든데, 그 돈을 은행에 두는 것이 낫지 않은가? 교회는 내 돈을 불려서 투자 수익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드려야 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이 왜 근거 없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은 주식시장 투자 수익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여된다는 것을 성경의 한 예와 제 삶의 경험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영적 형성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 곧 주님의 날(The Lord's Day)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왜 토마스 목사는 우리에게 매주 일요일 교회에 오라고 권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왜 목회자들은 교회 출석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내가 이미 믿는 사람이라면, 내 구원이 교회 출석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완성하셨는데 왜 굳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지난주 십일조를 다루면서도 깊이 살펴보았듯이, 구원의 선물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하늘의 상급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기꺼이 응답하는지, 그리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셔 들여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주님의 날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핵심은 우리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예수 운동(Jesus Movement)'이 일어났습니다. 1970년대 젊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예수 운동(Jesus Movement) 이라고 불리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통적인 교회 예전(liturgy)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모임을 통해 서로의 믿음을 나누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매우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히피 문화가 추구했던 공동체 정신과도 잘 맞았습니다. 엄격한 교회의 성례전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신앙의 문지기들(gatekeepers)이 규정하는 형식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믿음" 하나에 집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비교하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포장하고, 절반의 진리(half-truth)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듣기에도 좋고 기분도 좋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마귀에게서 나온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의 사역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한 이 편지에서 바울은 매우 분명하고 간결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했다면, 동시에 회중에게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고 명하시는 구절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거의 예언자적으로 짚어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예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예수님은 믿지만 전통적인 교회 모임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온 세상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 코로나19 봉쇄(COVID lockdown)와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가 마귀에게서 왔으며, 마귀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팬데믹 자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당시 팬데믹 대응과 관련하여 앤서니 파우치(Anthony Fauci)가 의회에서 여러 질문을 받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목적은 팬데믹 봉쇄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팬데믹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팬데믹은 새로운 기술을 사역에 활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봉쇄 기간 동안 우리는 아름답고 유익한 기술 하나를 우리의 삶뿐 아니라 복음 전파에도 적극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Zoom입니다. AMI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정기 모임은 Zoom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 Zoom, GoToMeeting, Skype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회의를 해 보셨을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즉시 연결되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봉쇄 기간 동안 집에 머물라는 지침이 내려졌을 때, 주일예배든 다른 어떤 모임이든, Zoom을 통해 드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았습니다. 기술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기술이 제공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도 이 편지를 갈대 펜과 파피루스라는 당시의 기술을 사용하여 디모데에게 전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Zoom을 통해 전 세계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십니다. 심지어 세례식도 Zoom을 통해 진행합니다. 물론 실제 물속에 사람을 담그는 것은 현지 성도들이 하지만, 목사님은 Zoom으로 세례를 인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BVC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대답은 "예"입니다. 우리는 팬데믹 기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는다면, 기술을 사역에

적극 활용하더라도, 직접 모일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통해 사역했지만, 동시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도록 권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전파하다(**preach**)' 라는 단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헬라어 κήρυξον (케뤼크손, **kēruxon**) 은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고 풍성한 의미는 왕의 칙령을 광장에서 선포하는 전령(**herald**)이나 마을의 포고자(**town crier**)처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즉, 설교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함께 모여, 서로의 표정과 몸짓, 모든 비언어적 표현을 직접 경험하며, 설교자가 왕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목회자가 전하는 왕의 메시지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형태의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직접 함께 모입니다. 함께 교제하고(**fellowship**),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주일(**Sunday**)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오해는 주일이 안식일(**Sabbath**) 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금요기도회(**FNP**)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제가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FNP**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은 하나님의 계명뿐 아니라 사도들이 남겨 준 전통 위에서도 세워져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성경학교(**VBS**), 수련회(**retreat**),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주일예배(**Sunday worship**) 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일을 지켜라" 라는 명시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거룩하게 보냈고, 그 다음 날인 첫째 날에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예를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창에서 떨어져 죽었던 청년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7

"그 주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그 다음 날인 한 주의 첫째 날에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곧 주님의 날(**Lord's Day**) 에 함께 모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교회 공동체로 교제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이 날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십일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시간이 될 때만, 혹은 편리할 때만 교회에 오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직접 모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날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삼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BVC**의 주일예배가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둘 때,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대하듯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긴박감과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날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2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이것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일이 긴급하다(**urgent**)는 것은 지금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일함(**complacency**)과 긴박감(**urgency**)의 차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즉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in season and out of season**)"라는 표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무리 불편한 상황이라도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말씀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를 얻은 경우(**in season**)'는 편리한 상황입니다. '때를 얻지 못한 경우(**out of season**)'는 주일예배에 참석하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사탄)는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주님의 날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모두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작하게 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Experiencing God**)』 제자훈련에서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지난주 십일조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면서도 나누었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변화와 조정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관련된 이 축복, 곧 영적 형성(**Spiritual Formation**)의 중요한 한 부분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을 굳게 붙든다는 것은 1년에 52번의 주일만 따로 떼어 놓고 나머지 6일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기회,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기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영적인 가족이 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적인 의미의 친교(**fellowship**)도 교회 안에서 우정을 쌓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같은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서로의 존재 앞에서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을 굳게 붙드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기회를 긴급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하라"고 권면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참여하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계(**livelihood**)를 무너뜨리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모임, 모든 성경공부 모임,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날의 찬양과 예배를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결혼생활, 직장,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일에 맞추어 정렬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함께 모여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이 긴박함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잊어버리는 한 가지 사실과 연결합니다. 저 역시 때때로 이것을 잊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예배를 긴박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1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함께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심판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너는 진리를 전해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해야 한다.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야 한다. 오래 참고 계속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들만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부르신 모든 사람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목요일 저녁 식당에서 있었던 일: 진과 스티븐과 저희는 서로의 간증(testimony)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03세 어머니와 자신의 저녁 식사를 찾으러 온 한 아름다운 연세 많은 여성분이 우리 대화에 함께 참여하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우리가 간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자, 그분은 "무슨 간증이요?"라고 물었습니다. 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에 대한 간증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단순히 '일요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주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의 진앙지(epicenter)와 같습니다. 주일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감격이 한 주 내내 울려 퍼져,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열망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폭발적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긴박함으로 우리는 주일예배를 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모두를 하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바울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하고 찬양할 때, 늘 깨어 있고(경계하며) 정신을 차리고(근신하여)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3-4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BVC를 개척하면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 많은 조언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 전화, 이메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으로, 사랑하는 BVC 가족들과 다른 교회의 분들까지도 다양한 설교 주제에 대해 의견을 보내 주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처럼 많은 분들이 제가 무엇을 설교하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저는 즐겁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통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지, 또 그 형제나 자매가 현재 어떤 믿음의 단계에 있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제안 자체는 전혀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곧, "내가 교회에 와서 듣고 싶은 메시지."

바울이 "귀가 가렵다(*itching ears*)" 고 말한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첫 번째 의미

이것은 목회자들뿐 아니라, 소그룹에서, 교제 가운데, 심지어 식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인기 있는 것을 전하지 말고, 진리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LGBTQ를 인정하는 교회(LGBTQ-affirming church) 비판하지 않는 영적 공동체(A non-judgmental spiritual community) 하나님은 사랑이시다(God is Love) 사실 이 세 가지 표현은 어느 정도는 모두 사실입니다. 우리는 LGBTQ 공동체를 환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죄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동시에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성적 부도덕(*sexual immorality*)은 죄입니다.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죄를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도 거룩해지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채 계속 죄 가운데 머문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죄에 대한 책망이 있는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매주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 모두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일 때 그분의 임재로 인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 두 번째 의미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곧, 여러분의 귀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은 재정적인 축복이 여러분이 드리는 십일조의 양에 정확히 비례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싶습니까? 혹은 죄를 책망하는 설교는 듣고 싶지만, 유독 한 가지 죄만큼은 절대로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합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 죄만큼은 책망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삶을 전혀 바꾸지 않고도, 아무런 희생이나 고통스러운 결단 없이도, 늘 살아오던 그대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영적인 삶을 살며, 성령과 함께 살아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귀가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유가 평일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정당화하거나 지지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 주간의 삶 전체를, 그리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BVC의 예배와 설교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돈을 더 많이 벌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내는 것이 목적도 아닙니다. 또한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짓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척하도록 돕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BVC**에서의 주님의 날은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사랑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또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며, 거룩하게 하셔서 하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깨어 있고 근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의 진리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영적 형성(**Spiritual Formation**) 시리즈의 두 번째 주제인 "주님의 날(**The Lord's Day**)" 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빚어 가시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조정(**adjustment**) 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항상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결혼할 때도 그렇고, 자녀를 낳을 때도 그렇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변화, 곧 하나님의 뜻에 삶을 맞추는 것(**alignment with God's will**) 은 앞으로 진행될 가을 금요기도회(**FPN**), 소그룹 사역,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Experiencing God**)』 제자훈련 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삶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매우 중요한 중심에 주님의 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축복과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